

우리문화 '한지'에 담아 현대화

예원한지조형회 정기협회전
내달 4일까지 교동미술관서

제12회 예원한지조형회 정기협회전을 30일 교동미술관 2관에서 열었다.

예원한지조형작가협회 회원들은 예원예술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한 작가들이 모여 한지의 심도있는 작품을 연구하며 우리문화를 한지에 담아 현대화하는 작업에 앞장서서 나가고 있다.

'PAPER WORKS 새로운 모색'전은 12번째 정기협회전으로 명예회원3명(차종순, 유봉희, 이철규·현 예원예술대학교 교수), 협회 회원13명(김미진, 김예름, 류귀화, 송미령, 신경자, 신미금, 유시라, 유안순, 전진숙, 정여훈, 정유리, 정은희, 최지영) 총16명이 참여하며, 이번 전시를 통해 회원들은 한지의 문화적 가치와, 우수한 물성,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그 가치를 꾸준히 증명하고 선보이기 위해 각자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작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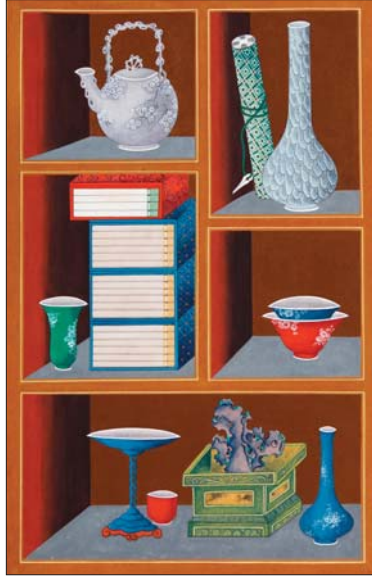
송미령 예원한지조형회 회장은 "예원한지조형회는 전통적인 소재인 '한지'를 화두로 잡고 그곳에서 나오는 감성을 한지의 문화적 가치와, 우수한물성, 미래의 가능성을 보



정은희- 다시 피어나다

여주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나날이 새로움의 가치를 보여주고자 기획한 전시가 벌써 열두 번째가 되었다.

한지, '새로운 모색전'에 꼭 참석해 주시



유안순- 책가도

서 회원들의 열정에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시회는 11월 4일까지 열린다. /김재훈 기자

'천년의 전통에 편안함을 더하다' ...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관 전북 건축문화상 대상

남원시가 관한루원 관광권역 세 확장을 위해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관이 전북도 건축문화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2000년에 시작해 올해 제19회회를 맞이한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공공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 공모에는 공공·일반·학생계획·건축사건 분야 등 7개 부문에 총 110점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공정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선정된 부문별 수상작은 11월 2일까지 전북도청 1층 기획전시실과 로비 등에서 전시된다.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관은 연간 100만명 이상이 찾는 남원시 대표관광지로, 관한루원의 관광권역을 확장하고 구도심권 재생을 위해 남원시가 2020년까지 5단계로 추진 중인 남원예촌 조성의 1차 사업으로 지난 2016년 개관했다.

특히, 이곳은 2017년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해 한국관광 최고의 브랜드에 수여하는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되기도 했다.

남원예촌은 남원시가 관한루원과 연계해 한옥의 맛을 통한 구도심권 재생에 목적을 두고, 최기영 대목장을 비롯한 명장들이 직접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전통방식을 재현하였으



전북 건축문화상 대상을 수상한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관.

며,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백제시대 건축양식인 하양식 구조를 적용한 점 등 전통의 맛을 살린 도시재생과 지역전통건축 특성의 재현 노력 등이 심사에서 높이 평가 받았다.

또한 남원시와 이랜드파크가 손을 잡고 운영 중인 '남원예촌'은 전통건축방식은 유지하되 '천년의 전통에 편안함을 더하다'라는 컨셉으로 호텔식 서비스 제공으로 전통한옥이 불편하다는 편견을 깬으며, 국악·전통놀이·

한복입기 등 지역 관광특색과 체험적 요소를 연계해 이용객들에게 높은 관광 만족도를 주면서 전북관광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이현재 남원시 관광과장은 "앞으로도 남원예촌의 전통적 가치를 더욱 높이는데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우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남원예촌을 많이 찾아 달라"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독립영화제 개막작 이지향 감독의 '꼬리잡기'.

다양한 영화 즐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내일부터 5일까지 전주시 독립영화축제 열려

전주국제영화제가 열리는 대한민국 영화 1번지 전주에서 가을을 맞아 또 한 번의 영화축제가 펼쳐진다.

(사)전북독립영화협회가 주최하고 전북독립영화제 집행위원회가 주관하는 2018 전북독립영화제가 '내일은 격과왕'이라는 슬로건으로 내일부터 5일까지 CGV 전주 고사점 등 전주시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18년째를 맞은 이번 영화제의 슬로건은 성공에 의미를 두기 보다 내일은 격과왕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 '내일은 격과왕'이라고 정했다.

영화제는 11월1일 오후 7시 CGV 전주 고사점 1관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2~5일) CGV전주 고사 3관(3~4일) 등에서 진행된다.

개막식에서는 2018전북단편영화제작품 지원을 받아 만들어진 이지향 감독의 '꼬리잡기'와 2018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

제 판타스틱 단편 결작에서 상영된 임종민 감독의 '텔미비전'이 상영된다.

이어 2018미장센단편영화제 최우수작에서 상영된 김유준 감독의 '십자인대', 2018전주국제영화제를 비롯해 다수의 영화제에서 상영된 오정민 감독의 '성인식' 등 총 4편의 단편영화 관객들을 만난다. 이밖에도 영화제에서는 역대 최대인 842편의 경쟁 부문 출품작 중 치열한 심사 끝에 선정된 27편을 포함해 총 43편의 독립영화를 선보인다.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사)전북독립영화협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화제 집행위 관계자는 "전국의 영화인과 독립영화를 사랑하는 관객으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은 전북독립영화제에서 다양한 독립영화를 즐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화려한 군무와 섬세한 감성 뮤지컬 '은밀하게 위대하게'

내일 오후 7시 30분 고창문화의전당서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남북한 분단 속 특별한, 그리고 평범하고 싶은 청춘들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 '은밀하게 위대하게'를 내일 오후 7시 30분부터 고창문화의전당에서 선보인다.

뮤지컬 '은밀하게 위대하게'는 달동네 슈퍼집 바보가 사실은 북한 최정예 스파이라는 독특한 설정으로 2억5천만 뷰를 기록하며 사랑받은 웹툰계의 대작이다.

이후 영화로 제작되어 영화배우 김수현이

북한 최고 남파특수공작원 역을 맡아 짜릿한 액션 활약을 보여주기도 했다.

특히 이번 뮤지컬은 드라마, 음악, 안무 기본 3박자에 충실한 공연으로 남북한 분단 속 특별한 간첩이야기 또는 평범하고 싶은 청춘들의 이야기를 그리며, 드라마 속 따뜻한 정과 음악의 사람스러운 표현법으로 뮤지컬만의 매력을 보여준다.

공연 관람료는 일반 3,000원 / 학생 1,500원으로 고창문화의전당(T.560-8041~2) 현장에 매를 통해 가능하다.

/고창=김영식 기자

무주 반디불 농·특산물 서울로 갑니다!

해발 400~800m 연평균 11.3°C
안전한 먹거리! 반디불이 배웁니다!

농·특산물 홍보 & 판매행사

기간 : 2018. 11. 2(금) ~ 11. 7(수)

장소 : 농협 하나로마트 서울 양재점
(창동,고양,성남)